

‘KREI리포터’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1. 개 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7년 10월 30일~31일
- 장 소: 동홍천 삼포권역 농어촌 인성학교(강원 홍천)
- 참 석: 총 12명
 - 강원지회 리포터: 김남수, 변해동, 송인숙, 심호섭, 변옥철, 이윤희, 유영조, 신금영, 지명훈, 이진수, 박정숙, 박현근
- 주요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비 고
30일(월)	12:00~14:00	점심식사	
	14:00~15:00	6차산업 현장견학1	홍천 동키랜드 농장
	15:00~16:00	6차산업 현장견학2	하이트 맥주공장
	16:00~18:00	6차산업 현장견학3	딸기 농장
	18:00~19:00	저녁식사	
	19:00~22:00	간담회	‘청탁금지법’ 등 현장여론 논의
31일(화)	08:00~09:30	아침식사	
	09:30~	해산	

2. 주요 논의 내용

○ 6차산업 현장 견학

[홍천 동키랜드 농장]

- 한우를 키우던 축산 농가였으나 구제역으로 소를 접고 교육농장으로 전업을 한 농가이다. 기존의 축사를 이용해서 당나귀를 키우고 아이들은 당나귀를 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 50kg이상의 사람은 탈수가 없어서 비누베이스에 당나귀우유를 넣고 천연비누 만드는 체험과 야외에서 족욕을 하여 피로를 풀수 있는 체험을 하였다. 야외의 족욕은 앞

의 볼 수 있는 경관이 한적한 농촌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을 위해서 동네를 경관농업에 주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경관농업 보조금이 2440원 이면 여기에 조금 더 수익을 내면 5000원 정도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이트 맥주공장]

- 우리나라의 맥주 생산을 하는 공장을 견학하였는데 하이트 부지가 16만평에 320만병에서 400만병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공장이다. HACCP는 물론 IS2200획득해서 고품질의 토종기업이라고 한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직원을 500명이라고 하나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앞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생산라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은 연구실과 검사실이였다.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다. 재활용으로 입고된 병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5번의 검사와 소독을 하고 비품을 찾아낸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동화로 되어 지고 있다. AI시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지역에서 맥아를 구매 하였으나 지금은 전량 수입을 하고 지역사람들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

[홍천 딸기체험농장]

- 올해 40대는 젊은 귀농인이 딸기 체험을 주제로 농장운영을 시작한 농가이다. 현재는 혼자 귀농했으나 3명의 자녀와 부인이 곧 내려오기로 했다고 한다. 마을 축제 등 지역에서 일이 많다고 한다. 지역의 이장님이 딸기 체험을 하려고 농장과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는 중에 귀농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이 농장에서 별어서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였다고 한다. 이장님은 동네의 체험농장이 운영됨으로 소득이 생기고 사람들의 유입으로 이득이 생긴다고 한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현장여론 수렴

- 유명조: 아주 바람직한 제도이다. 조금 더 지나면 저가의 선물이 자리

를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

- 송인숙: 받을 사람들은 택배로 다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택배가 더 활성화가 되었다고 한다. 가시화가 되지 않는 음지에서의 거래가 되어 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 변해동: 생물에 한해서 허용을 했으면 한다.
- 김남수: 농산물이 전부 생물인데 기준이 어디냐가 문제이다
- 심호섭: 생물도 가격이 고가인 것도 많다.
- 이진수: 토종별이 바이러스 병의 전파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 납품을 하는데 한 되에 80만원에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가격이 올랐다고 농가에 소득이 늘은 것은 아니다. 선물에 제약이 있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거래는 줄었다.

○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현장여론 수렴

- 유영조: 지금 쌀이 규제가 되어서 대기업에서 투자나 가공을 할 수가 없다. 규제를 풀어서 개발을 해서 소비를 해야 한다.
- 심호섭: 쌀 전업농이다 보니 올해도 가격이 떨어진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보조금을 받는 대농이 일 년만이라도 휴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재고도 소진되고 쌀값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
- 송인숙: 마트에 가서 보면 쌀로 가공이 된 것이 밀가루 가공품에 비해 현저히 적다. 가공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밀가루를 대체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밀가루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쌀가루는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변해동: 쌀 문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데 모를 하면서 지켜왔나 하는 생각이다. 안타까운 면이 있다.

○ 강원지역 농업이슈 및 현장여론 수렴

- 이진수: 그동안의 보조사업이 건물에만 치중이 되었다. 건물을 운영을 못해서 유지비가 안 나와서 운영이 어렵다.
- 이윤희: 요즘 시골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추진되는 것이 청년농업인 귀농 등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장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농업을 오래 하신 분들의 고정관념으로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교육이 필요하다.
- 송인숙: 요즘 시골에서 겨울이 되면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일반화 되어진 것 같다. 농민들이 겨울에도 농사에 대한 공부를 하던지 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간다.
- 신금영: 일할 사람이 없다. 토마토를 하는데 수확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 변옥철: 들깨를 심었는데 몇 년째 한말에 사만원이다.
- 변해동: 농민들이 농사자금을 쓰는데 금리가 있다. 무이자 선도출하금을 확대해서 농민들에게 주고 선도출하금 목적대로 구매도 농협이 하는 방안을 정비해서 확대를 하면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송인숙: 선도출하금 제도를 처음 듣는 말이다. 우리는 모든 영농자금을 이자를 주고 있는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 심호섭: 작목반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농협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다.
- 심호섭 : 배추가 많이 심어졌다고 김장배추 하락이라고 나오는데 현장에 배추가 병이 많이 들었다. 고추도 많이 심었지만 병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해는 고가였다. 김장때 가면 우리 지역은 배추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4000포기 심었는데 1000포기 바이러스병이 들었다. 김장뿐만 아니라 콩도 죽정이가 많이 있다. 수확이 예년보다 많이 줄 것

같다. 원인을 생각해보니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한달 반동안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6월은 극심한 가뭄이었고 다음 7,8월은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가뭄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데 긴 장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송인숙: 우리도 아이가 들어 왔다가 1년 만에 직장을 잡아서 나갔다. 우리가 아이를 봤을 때는 헛꿈을 꾸는 것 같고 아이가 우리를 봤을 때 고정관념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 박정숙: 저희는 둘째아이가 후계농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 아이는 현재 직업이 3개다. 여름 두 달은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봄가을 농사를 짓고 겨울은 스키강사를 하고 있다
- 박현근: 이곳이 잘되어서 귀농하는 사람들 교육장이 되면 좋겠다. 귀농은 무작정 움직여야 한다. 이득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은 시작이나 무작정 움직여야 한다. 처음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시골에서 20년-30년 일한 사람들도 힘든데 귀농을 했다고 당장 일을 잘할 수는 없다.
- 변해동: 귀농하는 사람들이 귀농학교를 졸업을 하고 들어와서 현지 농사짓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모든지 배우려는 자세로 귀농을 하면 성공할수 있다.
- 송인숙: 귀농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돈이 안 되어서 속도 상할 것이고 아이들 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이 속상하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이길 수가 없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공하길 바란다.

○ 추후 강원지회 간담회 일정 수립

- 다음 모임은 화천에서 하기로 하고 일정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3. 이모저모

